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요약보고서**

2016. 5. 16(월) ~ 18(수)  
일본 호텔 오후라 도쿄

**주최 : [사]한일경제협회**

**협력 : 산업통상자원부, [재]한일산업 · 기술협력재단**

# 목 차

I . 개요 .....	1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자, 회의주제)	

II . 개최결과 .....	1
1. 개최성과 .....	1
2. 한국측 단장단의 일본 정부기관 예방, 주요 의견교환 내용 .....	4
3. 종합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	6

## [첨부자료]

1.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	7
2.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	8
3.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발표내용 요약 .....	10
4.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언론 보도기사 모음 .....	19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보고 (요약)

### I. 개요

1. 개최기간 : 2016. 5. 16(월)~18(수) \* 예방 : 5.16(월) / 본회의 : 5.17(화)~18(수)
2. 개최장소 : 일본 호텔오쿠라 도쿄
3.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318명
  - o 한국 측 :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136명
  - o 일본 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82명
4. 회의주제 :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 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
  - o 제1세션 :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
  - o 제2세션 :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 II. 개최 결과

#### 1. 개최 성과

- ☐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이후 첫 해인 올 해를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으로 정하고, 새로운 50년도 한일이 손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합의
- o 한일경제인회의 사상 최대인 318명의 경제인이 참가하여, 한일이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新 한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 o 同 시기에 정부 IR과 병행하여 일본 정부부처 예방·지진성금 전달 등 한일 관계 회복활동 등을 통해, 2012년 이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일교역 및 對韓 투자증대를 위한 한일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 새로운 50년을 향해 한일 경제계가 협조하여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에 공헌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통합주도,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성장분야 협력, △ICT연계 정보통신·관광분야 협력, △차세대 교류와 문화교류 확대 등 5대 핵심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
-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KBS, SBS, 일본경제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일간공업신문 등 국내외 주요 언론 홍보를 통해 한일 간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확산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측 단장단 방문 관련 보도자료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홍보됨
- 한국측 단장단(단장 :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행은 스가 내각관방장관, 경산성 장관 등 일본 정부부처 예방을 통해, 경제·인재·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나가는데 있어서 민간 경제계 활동에 대한 서포트를 요망
  -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 성장분야 R&D 협력, 한국의 TPP 가입 지지, 관광객 증대 협력, 한일축제한마당 홍보, 인재교류 확대 등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1) 한일 양국이 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

-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에 대한 양국 기업인들의 지지·환영 및 수준 높은 한일중 FTA 조기체결을 위한 지속적인 서포트

### (2) 제3국 공동진출 확대

- 제3국에서의 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금융·환율·투자 협력 등

### (3) 미래 성장분야에 있어서의 한일협력

- 의료·요양보호, 환경문제, 미래성장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R&D 네트워크 구축·기술 표준화 등

### (4) 정보통신·관광분야에서의 협력

- 관광객 유치증대 등을 위한 ICT를 활용한 연계에 대해 연구·협력 추진

### (5) 차세대 인재교류 활성화 및 문화교류 확대

- 한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고교생교류, 대학생교류, 청년인력의 일본 기업 인턴십 연수 실시, 중소기업 차세대 경영자 교류회 등 개최
- 한일·일한축제한마당 등 풀뿌리 문화사업을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촉진으로 연결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지속 실시

### (6) 차기회의 개최지 선정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2017년 한국에서 개최

## 2. 한국측 단장단 일본 정부기관 예방

### 가. 예방시간 및 예방 대상 :

5월 16일(월) 14:15 ~ 18:00, 5월 18일(수) 13:15 ~ 13:30

예방일정	예 방 처	성 명	비고
5월 16일(월)			
14:15~14:45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 / 額賀 福志郎	제2의원회관
16:00~16:30	외무 부대신	기하라 세이지 / 木原 誠二	외무성
17:40~18:00	경산대신	하야시 모토오 / 林 幹雄	경산성
5월 18일(수)			
13:15~13:30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 菅 義偉	수상관저

### 나. 예방자 : 단장 등 한국측 단장단 10명

\* 구분, 성명 가나다순

NO	구 분	성 명	단체·회사명 / 직위
1	단 장	김 윤 KIM Yoon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 (주)삼양홀딩스 회장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2	부 단 장	김 희 용 KIM Hi Yong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동양물산기업(주) 회장
3	부 단 장	박 삼 구 PARK Sam Koo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4	부 단 장	박 상 진 PARK Sang Jin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삼성전자(주) 사장
5	부 단 장	조 현 준 CHO Hyun Joon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주)효성 사장
6	부 단 장	하 영 봉 HA Young Bong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대행 GS Energy(주) 대표이사 사장
7	부 단 장	한 동 우 HAN Dong Woo	(사)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주)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8	부 단 장	이 종 윤 RHEE Chong Yun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9	단 원	이 영 관 LEE Young Kwan	(사)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 도레이첨단소재(주) 회장
10	특별참가 (경과보고)	안 종 원 AHN Chong Won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체어맨 (주)사조동아원 고문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일한경제협회 배석 및 안내자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사)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주) 특별고문·前 회장
-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기무라 신이치로(木村 慎一郎) (사)일한경제협회 상무이사

※ 사무국 및 통역

- 사무국 : (사)한일경제협회 조덕묘 사무국장, 서광현 대리 / 서정배 (주)삼양홀딩스 비서팀장
- 통 역 : 최은주 통역사

## 다. 정부부처별 의견교환 내용

주요 의견교환 내용
<p><b>&lt;내각관방장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마모토 대지진 지원에 대한 감사</li> <li>○ 한일 양국 협회가 오랜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협력·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함</li> <li>○ 올 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등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b>한일이 서로 연계하면서 북한의 돌출행동에 대응해</b> 나가는 것이 중요함</li> <li>○ 양국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가 되도록 응원하겠음</li> </ul> <p><b>&lt;일한의원연맹회장&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도 중국의 성장정체 등으로 인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타격을 입는 등, 경제성장이 주춤한 상황이므로 <b>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아시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b> 해야 할 것임</li> <li>○ 한일 공통과제에 대한 상호협력을 당부(인구감소, 생산성향상, 환경문제, 상호보완관계, 의료·요양보호, 고용문제 등)</li> </ul> <p><b>&lt;경산대신&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마모토 대지진 지원에 대한 감사</li> <li>○ 올 해를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에 걸맞게 중국의 성장둔화 및 원유가격 하락 등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속에서도, <b>한일 양국 경제인이 합심하여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해 노력해</b> 주기를 바람</li> </ul> <p><b>&lt;외무 부대신&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양국 정상간에는 긴 시간동안 대화가 없었으나 민간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국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양국 경제인에게 경의를 표함</li> <li>○ <b>한중일 또는 한일 관광청 구축</b> 건과 관련하여, 올 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때 의제화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전달하겠음</li> </ul>
<p><b>&lt;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 표명</li> <li>○ 이번 회의에서는 올 해를 <b>‘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b>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 논의 예정임을 설명</li> <li>○ 경제·문화·인재교류를 3개의 핵심사업으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업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 제3국 공동진출, 경제인회의 등 경제교류회의, 상담회 개최 등</li> <li>- 인재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한일학생미래회의</li> <li>- 문화 : 한일축제한마당</li> </ul> </li> <li>○ 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장(박삼구 회장)으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인도 한국을 많이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며, <b>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을 통해 3국 15억명의 인구가 상호교류</b> 할 수 있었으면 함</li> </ul>

#### 4.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 종합평가

-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에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국제정세 악화, 글로벌 경제위기, 대지진 등 수차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한 번도 중단되는 일 없이 48년간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옴으로써 한일협력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함
  - 동일본 대지진 5주기를 맞아 일본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 표명 및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명의로 지진 성금 700만엔(약 7,500만원)을 일본측에 전달
- 양국 경제인들은 올 해 2016년을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으로 삼아 경제·인재·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일 양국 관계가 다면적 협력체제로 강화되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형성되었음
  -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하여, 한일은 기본적으로 원원하는 관계임을 널리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번 경제인회의에서는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긍정적·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하고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일 양국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유익한 회의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 향후 후속조치 계획

- (1) 회의 참가자 및 협력기관 등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 (2)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제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3) 대정부 공동성명서 제출
- (4)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논의 의제 선정



## 첨부 1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 일시 : '16. 5. 17(화)~18(수) □ 장소 : 호텔 오쿠라 도쿄 별관 B2F ASCOT HALL  
□ 주제 : 한일 우호·경제협력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시대를 열어가요

■ 5월 17일(화) 14:30~19:00	
개회 □단장인사 14:30~15:00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前회장) ■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 · (주)삼양홀딩스 회장
내빈인사 15:00~15:40	□ 일본측 내빈 : 호시노 츠요시(星野 剛士) 경제산업대신정무관 ■ 한국측 내빈 : 주형환(周亨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일본측 내빈 :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 일본측 내빈 : 사카키바라 사다유키(口原 定征)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기조강연 15:40~16:10	□ 일본측 강연 :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 한국측 강연 : 박용만(朴容晩)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6:10~16:50	Coffee Break
보고제언 16:50~17:20	□ 일본측 보고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일본측 체어맨 ■ 한국측 보고 : 안종원(安宗原) 사조동아원(주) 고문, 한국측 체어맨 ◇ 협회활동의 일반경과보고 :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종윤(李鐘允)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리셉션 17:30~19:00	공동개최 리셉션(별관 2F 오차드룸)
■ 5월 18일(수) 09:00~16:20	
재단연락협의회 07:30~08:30	한일 양국재단 연락협의회(관계자만 참석) : (별관 12F 켄진톤테라스)
제1세션 09:00~11:20 (발표15분×4명, 질의응답 80분)	◎ 좌장 : 이경태(李景台)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 주제 :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  □ 일본측 발표자 : 이시야마 히로츠클(石山 博嗣) 前 SJC이사장 /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 발표주제 : 한일 경제연계와 발전 ~ 제3국으로의 전개 ■ 한국측 발표자 : 박상진(朴商鎭) 삼성전자(주) 사장 □ 발표주제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일 R&D네트워크 구축 □ 일본측 발표자 : 양인집(楊仁集) 진로(주) 대표이사사장 □ 발표주제 : 한일의 미래를 움직이는 경영 ■ 한국측 발표자 : 권태신(權泰信) 한국경제연구원장 □ 발표주제 :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특별강연 11:20~11:35	■ 유명환(柳明桓)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前 외교통상부 장관·주일한국대사 □ 발표주제 : 북한문제에 관하여
오찬회 11:45~12:45	※ 단장(단장)산업무역회의 체어맨 (공동성명안 심의) : 별관12F 켄진톤테라스 ※ 단원 : 별관 2F 오차드룸
제2세션 13:20~15:40 (발표15분×4명, 질의응답 60분)	◎ 좌장 : 히라노 가츠미(平野 克己) 일본무역진흥기구 이사 ◎ 주제 : 한일우호·경제협력원년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 일본측 발표자 : 가토 마사히코(加藤 勝彦) 한국미즈호은행 서울지점장 □ 발표주제 : 일본기업의 글로벌전개와 한일연계 ■ 한국측 발표자 : 박태호(朴泰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발표주제 : TPP의 출범과 한일협력 □ 일본측 발표자 : 이노우에 다케노부(井上 剛伸) 국립장애인지원센터리테이션센터연구소 부장 □ 발표주제 : 복지기기의 연구개발과 한일연계 ■ 한국측 발표자 : 홍정국(洪政國)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고문 □ 발표주제 : 한일간 인재교류 활성화와 한일협력의 강화
15:40~16:00	Coffee Break
폐회식 16:00~16:20	공동성명 채택, 양국단장 폐회인사, 폐회
공동기자회견 16:30~17:00	공동기자회견(양국단장) : 별관12F 켄진톤테라스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 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국교정상화 51주년을 맞이한 2016년 5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김 윤(金 鈞) 단장 등 136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등 182명이 참가하였다.

### **【51년간의 한일협력】**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양국 경제인은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을 맞이한 올 해까지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한일경제인회의를 지속 개최해 왔으며, 오늘 제48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간 한일관계의 정치적 냉각 속에서도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서울에서의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나아가서 한일상공회의소회장 회의, 한국 전경련·일본 경단련·양국 경제협회 공동 심포지움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일의 관계개선을 꾀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작년 11월 2일에는 절실히 갈망하던 양국 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 민간의 입장에서 양국의 관계개선 분위기조성에 진력해 온 기업인들로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의 결단에 의한 정상회담 실현을 크게 환영하며, 본 회담개최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가일층 긴밀화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중국경제의 불투명성, 에너지·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기존 경제질서의 불안정성 및 북한의 거듭된 도발행위 등에 양국 경제인은 강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때일수록 양국 경제계는 경제연계의 강화와 인재교류 및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우호확대는 물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양국 협력에 의한 인프라 수출 등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해 나가기로 하였다.

### **【동일본대지진 5주기를 맞이하며】**

일본에 크나 큰 피해를 입힌 동일본대지진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 아직도 17만 여명의 국민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열심히 복구·부흥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여 한국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에도 한국정부·국민으로부터 위문·구호 물자를 받았다. 일본의 경제인은 한국 정부, 국민들의 광범위한 물심양면의 지원과 깊은 우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본 경제인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표명되었다.

### **【향후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의 한일협력】**

양국 경제인은 국교정상화 51주년인 올 해, 다시금 선진국으로서의 자각을 새로이 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도 밀접하게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경제계가 협조하여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 **1. 한일 양국이 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

양국 경제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경제권’ 형성, 나아가 아시아지역 전체의

경제통합을 향해 한일 양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양국 경제인은 올 해 2월 4일에 12개국에 의해 서명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참여하길 희망한다. 또한, 나아가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의 조기체결을 향해 향후에도 서포트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2.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양국 경제인은 향후 자원개발·인프라수출 분야에 있어 양국 그리고 제3국이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금융분야 에서도 한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제3국에서의 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환율·투자 등 일련의 경제정책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 정부에 현실적이고도 적절한 운영을 요망하기로 했다.

## 3. 미래 성장분야의 협력

저출산 고령화는 양국 공통의 사회적 과제이며 장래에는 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양국 경제인은 고령자 의료·요양보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핵심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의료·요양보호 기기의 개발, 요양보호 인재의 확보와 교육, 시설운영 등에 대한 아시아 각국들의 협력을 얻는 것을 포함한 폭 넓은 정보의 공유, 국제 규격화 등에 있어 협조할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협조와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성장전략이 됨을 인식하고, 양국 경제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 분야뿐 아니라 다른 미래지향기술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메리트가 있는 공동연구 및 R&D 네트워크 구축을 향하여 기술표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 4. 정보통신·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양국 경제인은 양국에서 연간 600만명이 왕래하는 요즈음, 양국 관광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ICT를 활용한 연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5. 차세대교류와 문화교류의 확대

양국 경제인은 다음 한일관계 50년을 짚어질 차세대의 교류와 문화교류에 의한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심화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청년인재육성사업/한일고교생교류캠프 및 한일대학생미래회의를 지속하고, 또한 일본기업의 문화이해에 도움이 되는 주한 일본기업에서의 한국 대학생 인턴십 및 차세대 중소기업 젊은 경영자 교류를 충실히 하기로 했다. 매년 가을에 양국에서 각각 개최되는 한일·일한축제한마당은 양국 기업의 지원 등으로 작년 참가자 수가 과거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에 걸 맞는 행사가 되었다. 이러한 차세대교류 및 풀뿌리 문화사업을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촉진에 연결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하기로 하고, 더 많은 교류의 확충·발전을 향해 양국 정부의 이해와 지원을 기대한다.

### 【차기 회의 개최】

다음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6년 5월 18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 幹夫

□ 전체테마 : ‘ 한일우호 · 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 · 인재 · 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 ’

\* 순서 : 발표순

## [양국 단장 개회인사]

사사키 미키오(佐口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 개회식 시작과 더불어 한일경제협회 회원사로부터 지난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에 대한 성금을 전달 받았으며,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께서도 위로와 구호물자 등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 △한일 양국에 의한 아시아의 경제통합 주도
  -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금융협력
  - △미래 성장분야인 한일 의료·요양보호기기 개발 및 간호인재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처
  -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협력
  - △차세대 인재교류·문화교류와 관광교류
 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함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이 손잡고 함께 지나온 50년을 회고해 보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으며,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인 2016년을 새로운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우리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아나가야 함
-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지능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에 있어서도 양국 협력에 의한 공동 R&D 활동 및 인적교류를 강화시켜 나간다면, 양국이 지금과 같은 과당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가일층 긴밀화된 한일 서플라이 체인 구조 하에서 상생적 발전을 이루어 갈 것임
- 작년 말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접국끼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CE)가 출범함으로써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형성되었는데, 동아시아 중심국가인 한일도 여기에 빨리 동참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작년 10월 타결된 TPP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한일은 더욱 협력의 기반이 구축될 것

## [내빈 인사]

### 호시노 츠요시(星野 剛士) 경제산업대신정무관

- 구마모토 대지진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방금 한일경제협회에서 의연금을 전달하시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5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우리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올해는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으로서 이를 위한 한일경제협력 강화가 과거보다 중요해졌음
-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기업이 하는 역할은 특히 중요하며 앞으로 양국의 기업 연계야 말로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될 것임

### 주 형 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분야에 있어 교역규모는 2.2억 달러에서 700억달러로 300배 이상 증가하였고, 3천개 이상의 일본계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400억불의 대한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음
- 한일 양국 경제인들의 협력을 통한 양국 공동성장과 나아가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협력방안 제시
  - △ 상호투자과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관계 강화
  - △ 신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경제협력 분야의 지평을 확대
  - △ 한일 양국간 협력을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
- 오늘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상호 우의가 돈독해지기를 바람

####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口) 일한의원연맹 회장

- 작년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양국 경제인들이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온 덕분임
-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이란 경제성장 달성이 필수이나, **정치의 안정없이 경제 성장은 없음**. 정치가 안정화되고 하나의 정책을 3년, 5년, 10년씩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경제 발전이 가능할 것임

#### 사카키바라 사다유키(口原 定征)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 올해는 다음 50년, 새로운 50년이 시작되는 첫 해임. 이 점을 명심하고 양국 경제계는 **함께 손잡고 보다 넓은 분야에서 양국의 공조와 협력을 위한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 금년 들어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중일 FTA 및 RCEP과 같은 경제협력 틀이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한국의 전경련과 함께 양국 정부에 촉구해 나갈 예정임
-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하여 일본 경제계는 **한국의 조기 참여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경단련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

## [기조연설]

####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 오늘날 한일 양국은 경제, 사회, 문화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아시아를 주도할 것이 기대되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함
- 양국 경제교류 촉진에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연계 협정 체결추진과 양국의 지역간 교류촉진이 매우 중요함**
  - △ TPP와 한중일 FTA 등을 활용해서 한국과 함께 아태지역의 경제연계 촉진을 도모하면서 한국 경제계의 여러분과 함께 지역 상공 회의소의 교류 활성화를 더욱 더 지원하고자 함

#### 박 용 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한일 양국의 경제진행 모습이 닮아간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일 경제가 공유하고 있는 경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한일 경제의 공통된 문제점**

- △노동시장 :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 △자본시장 : 자본축적만으로는 양국이 추가 성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
- △제도경쟁력 : 소득 수준에 비해 제도경쟁력이 아직도 취약

○ 양국의 성장과제

- △수출경쟁보다 투자협력
- △제도경쟁력으로 성장시스템에 걸맞은 노동·교육·규제 개선,
- △기업 혁신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등 경과보고]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개요 및 일본측 발표내용 보고」

- 본래 3세션까지 있던 발표시간을 2세션으로 줄이고 참가자가 모두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
- 제1세션 : 아시아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
  - △미키 SJC이사장 재임인사
  - △이시야마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 한일 경제연계와 발전
    - \* 양국과 세계의 주요 경제의 움직임, 그리고 한일 공조분야의 변천, 투자액의 변천 등을 분석
- 제2세션 :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 고레나가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3국에서의 한일 경제협력과 고령화 사회 대응, 그리고 차세대 인재·문화교류를 포함한 한일 상호협력
    - \* 양국 재단 활동을 정착기와 사업확대기, 사업개혁기로 나누어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고
    - \*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우애적인 경제 교류와 협회를 위한 경제와 인재, 문화교류를 융합시켜서 양국의 새로운 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안 종 원 사조동아원(주) 고문·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개요 및 한국측 발표내용 보고」

-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Hotel Okura Tokyo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35명, 일본 38명 등 73명의 경제인들이 참가하였음
-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를 함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일 R&D네트워크 구축

- \* 한일 경제협력의 고도화, 한일 R&D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
- \* 기존의 협력관계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양국 모두 신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대로 들어서 다양한 기술·아이디어의 융복합화를 통한 협력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
- \*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방안 : Service Science, 신산업 표준, 벤처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구축

- \* 한일 양국이 동일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의 공통 위협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중국의 맹렬한 추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앞으로 양국의 큰 과제라고 지적
- \* 양국의 핵심 신성장동력 정책 중 공통 분야 발굴 및 협력을 통해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공유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원격진료, 서비스 로봇 공동개발 등을 제안
- \*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방안 : Service Science, 신산업 표준, 벤처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 종 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한일·일한경제협회 일반경과보고」

○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 활동내용 소개

△한일경제인회의,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청소년교류사업,  
한일·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사업 등



## [제1세션 주제 :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

이시야마 히로츠구(石山 博嗣) 前 SJCI이사장 / 前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한일 경제연계와 발전 ~ 제3국으로의 전개」

### ○ 한일 경제연계 발전의 발자취

△기술·자금 제공 →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 한국에서의 한일기업 합작  
→ 제3국으로의 한일 공동진출(인도네시아 LNG공동개발, 요르단 화력 IPP)

△한일공동 사업 건수는 세계 20여개국에 40건 이상 전개  
(자원에너지, 인프라 설비□건설, 장기 프로젝트)

### △협업의 의미 :

- |            |                          |
|------------|--------------------------|
| * 자원조달력 강화 | * 양국 금융기관 Finance와 보험 활용 |
| * 리스크 세어   | * 장기 프로젝트의 지속가능력 강화      |
| * 마케팅 강화   | * 양국 기업의 상호보완에 따른 경쟁력 강화 |

### ○ 미래의 한일협업 분야

△공동 R&D, 의료·요양보호, 바이오의약품, 환경, 우주, 관광

- \* 관광 : 한일 공동 관광권 형성 등

박 상 진 삼성전자(주) 사장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일 R&D네트워크 구축」

### ○ 고도화가 필요한 한일 경제협력

△그동안 한일양국은 무역투자·신흥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하지만 경제환경 변화로 무역투자에서 R&D로 협력관계의 고도화가 필요  
: 글로벌경제의 뉴노멀 시대, 기존 산업 성장정체, 신흥국 추격 가시화 등

### ○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일 모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R&D 네트워크를 구축

△서비스 사이언스 네트워크 / 신산업표준 네트워크 / 벤처 생태계 네트워크

### ○ 한일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한일 정부 : 한일 R&D네트워크 구축지원 정책 확대, 동아시아 R&D 네트워크 구축 선도, 지재권 강화

△한일 기업 : 개방형 플랫폼 구축,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해외시장 동반진출

양 인 집 진로(주) 대표이사사장

「한일의 미래를 움직이는 경영」

- 최근 한일관계가 기업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 △최근 4년간 냉각된 한일관계로 인해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진로의 기업활동 소개 : 일본 사케 진출사례, 인재양성, 사회공헌 등

#### 권 태 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 한일경제의 공통적 위협요소 및 한일협력의 가능성
  - △위협요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중국경제의 추격
  - △지난 10년간 한국정부가 선정한 신성장 동력산업이 일본정부·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산업과도 상당부분 일치
- 미래 협력분야로 5개분야를 제시하고 신성장동력 개발과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위해 한일 FTA가 필수 조건임
  - △양국 공동 신성장동력 분야
  - △인더스티리 4.0 & 중국과의 기술격차 분야
  - △양국의 공통관심사인 고령화 분야 △중동지역 산업다각화 추진 분야
  - △인적교류와 금융분야의 협력

## [특별강연]

#### 유 명 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前 외교통상부 장관·前 주일한국대사 「북한문제에 관하여」

- 향후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의 안보리스크는 비행기 운항 중 불안정한 기류 지역을 통과할 때처럼 다소 흔들리는 정도로 그칠 것이니, 걱정은 하되,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됨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일반서민들의 생활은 큰 변화를 겪고 있음
  - △북한의 배급체제는 오래 전에 붕괴, 현재는 LE마켓이 400여개 이상 존재하며, 북한주민들 중에서도 소위 도매업의 부유층이 생기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처음에는 포용정책을 사용했으나 최근에 와서 봉쇄정책으로 전환함
  -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제2세션 주제 : 한일우호 · 경제협력원년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가토 마사히코(加藤 勝彦) 한국미즈호은행 서울지점장

「일본기업의 글로벌전개와 한일연계」

- 일본의 경우 해외투자는 기업을 지속성장시키기 위한 전략투자이며 단기적으로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해야 할 과제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신흥국의 거대한 구매력의 매력 등
- 한일연계는 타국과의 연계에 비해 강력한 보완 관계가 있고 아주 매력적인 카드임  
△양국의 경제 특성과 산업 구조가 보완 관계에 있음  
△재벌 중심의 한국과 중견·중소 기술력을 가지는 일본의 상호 보완관계는 양국 기업에 있어서 제3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충분히 매력적임
- 한일 양국 기업의 제3국에서의 공조방안  
△자원 개발과 인프라 개발의 공동투자  
△글로벌 통합 : 양국 기업이 생산·판매를 통합, 제3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  
△일본기업의 한국발 글로벌 전개 : 일본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이 한국 재벌 기업과 공조하여 제3국의 비즈니스를 전개

박 태 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제3국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한일협력 방안」

- 한일FTA는 양국 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  
△한일 양국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해야 할 것임
-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와 무역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며, 한중일 3국간 FTA를 가능한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이노우에 다케노부(井上 剛伸) 국립장애인리허빌리테이션센터연구소 부장

「복지기기의 연구개발과 한일연계」

-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복지 연구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1조2천억엔에 이룸
- 일본의 복지에 대한 주요관점  
△복지용 로봇 : 휴머노이드 = 로봇

△당사자의 참여 : 기술개발 시 실사용자의 이상을 수용

△배설 : 광촉매 등의 새로운 기술을 동원해서 실사용자의 배설냄새를 제거

△치매 :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말할 수 있는  
로봇을 활용하여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

○ 복지의 국제표준화

△한중일 3국이 아시아 특유의 체형을 포함한 복지 연구의 규격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발표

**홍 정 국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고문**

**「한일간 인재교류 활성화와 한일협력의 강화」**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음

△구체적·명확한 목적의식의 공유

△공동의 공간과 설비 등 활동공간의 공유

△다음 공정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성과물의 공유 등

○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인적교류를 촉진하여 지식의 융합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



# 朝鮮日報

조선경제

제29659호

## “韓·日 협력 통해 함께 성장하자”

韓日경제인회의 도쿄서 열려  
양국 기업인 300여명 참석



삼양홀딩스 제공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단장을 맡아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모여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하는 융·복합 시대의 양국 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17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열린 양국 대표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한·일 양국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모임 이후 매년 양국을 번갈아 오가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한국 단장을 맡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과 일본이 지나친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2016년을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元年)으로 삼자”고 말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제3국 공동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국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주도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기기와 간호 인력 양성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조현준 (주)효성 사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선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증권 회장, 도쿠라 마사카쓰 스미토모화학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참석자들은 또 지난 4월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름으로 성금 700만원(약 7500만원)을 일본 쪽에 전달했다.

이성훈 기자



## “한·일 경제협력, 인프라 분야로 확대하자”

도쿄 한일경제인회의 개막  
박용만 상의 회장 기조강연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는 올해를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자원이나 에너지 분야에 편승된 신흥국 진출 협력을 교통·사회기반시설 등 첨단 인프라 분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일 양국 경제인이 모여 협력을 다지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일본 도쿄 오후라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한·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제통합 △제3국 공동 진출 확대 △성장분야 연구개발(R&D) 협력 △지속성장을 위한 인재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양국 성장을 위해서는 한·일 투자협력을 통한 신흥국 진출이 필요하다”며 “신흥국의 자원, 에너지 분야에 편중된 협력을 교통·사회기반시설 등 첨단 인프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첫 번째)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한일경제협

주형환 산업부 장관  
자율주행차·드론 등 공조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새로운 50년, 힘을 모아야

사사키 日韓경제협회 회장  
3국 공동진출, 금융 지원을

은 “과거 양국 간 경제협력에 제조업, 부품소재 분야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신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 진출 등으로 경제통상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

주행차, 원격진료, 드론 등 첨단산업에서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국제표준 제정에서 공조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를 새로운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 구축에 양국 경제인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게이단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의 조기 참여를 기대하며 일본 경제게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기업의 제3국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의 제도금융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18일에는 ‘아시아의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와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신한·일 협력과 트러스트’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며, 이후 양국 경제협회 이름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s0900@hankyung.com

## [한일 경제협력 회복 가속화] 통상장관회담 정례화 합의...8000만 달러 투자 유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일 경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해마다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회의 개최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됐으나, 이번에 정례화 된 것으로 1차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국측이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Intra firm) 교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전체교역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측도 이에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액화천연가스(LNG)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 등 3가지 사항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기로 했다.

주형환(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집무실에서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LNG 협력과 관련해선 세계 1,2위 LNG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이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LNG계약 관행을 개선기로 했다.

계약서 상의 도착지 이외의 곳에 LNG 하역을 금지하는 도착지 제한과 연간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인수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데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제 3국 공동 진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해 해외 인프라 플랜트 분야에 공동 진출하자는 것이다.

실제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가 공동 지분으로 참여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본과 한국이 세계 4위, 7위에 해당하는 거대 전자상거래시장임을 감안해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디지털 싱글마켓’을 적극 실현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소액 거래 비중이 높아 통관물류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통관시스템, 국제배송 추적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보호, 전자결제 간편화, 과세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장관은 또 일본 오쿠라 호텔 등에서 현지 업체인 스미토모화학, 도레이 등 16개 기업과 원탁회의를 열어 8000만 달러(940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원탁회의는 같은날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를 계기로 현지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주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이 전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투자시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 진출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한국에 투자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5.1%에 해당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이 가능하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발효돼 2년차에 접어든 한중 FTA의 관세 혜택과 48시간 내 신속 통관 등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산업부와 중국 질검총국 간 비관세 장벽해소 노력의 성과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일본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세를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 규모는 ▷2012년 45억4000만달러 ▷2013년 26억9000만달러 ▷2014년 24억9000만달러 ▷2015년 16만7000만달러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8000만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지난해 3년 반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에 힘입어 어렵게 조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잘 살려 최근 위축되고 있는 교역과 투자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환경”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mailto:oskymoon@heraldcorp.com)

## "한중일 FTA 조기체결 지원"...한일경제인 공동성명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 폐막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과 일본 재계 요인들은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체결하도록 지원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는 18일 도쿄에서 끝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한일 주도에 의한 아시아 경제통합,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 성장분야의 협력, 정보통신·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차세대 교류와 문화교류의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한일 재계 요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jhcho@yna.co.kr](mailto:jhcho@yna.co.kr)

## 한일경제인회의, 도쿄서 개막... “우호·경제협력 원년 만들자”

한일 양국의 최고경영자(CEO) 318명이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주관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일본 도쿄(東京) 오쿠라 호텔에서 열렸다.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라는 주제로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CEO 318명이 참가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일 양국이 공동 연구개발(R&D) 활동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 양국이 지나친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한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연쇄적인 생산과 공급)’ 구조 하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면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효과가 생겨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난달 발생한 구마모토(熊本)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성금 700만 엔(약 7523만 원)을 일본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에 의한 아시아의 경제통합 주도,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를 위한 금융협력, 한일 의료·요양보호기기 개발 및 간호인재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16.05.17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한국이 TPP참여때 한-일FTA 체결 효과” 한일경제인회의 도쿄서 열려

한일 양국의 최고경영자(CEO) 318명이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주관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일본 도쿄(東京) 오쿠라 호텔에서 열렸다.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라는 주제로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양국 CEO 318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일 양국이 공동 연구개발(R&D) 활동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 양국이 지나친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한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연쇄적인 생산과 공급)’ 구조하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효과가 생겨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난달 발생한 구마모토(熊本)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성금 700만 엔(약 7523만 원)을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2016. 05. 18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한국경제

## 한일경제인회의 17일 도쿄에서 개막 …한일경제협회 · 일한경제협회 공동주최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는 17~18일 이틀간 일본 도쿄 오후라호텔에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해 새 시대를 열어 가요’ 주제로 새로운 한일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측에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기조연설),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일본측에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과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기조연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 오기타 히토시 아사히 그룹홀딩스 상담역,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증권 회장, 고이즈미 신이치 도레이 상담역,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사장 등이 참여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환 전 주일 한국대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한일경제협회의 이종윤 상근부회장은 “2016년은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이 되는 해다.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에 상응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아시아 경제통합,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 성장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협력, 지속성장을 위한 인재교류 확대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05. 10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 한국경제

## 도쿄 한일경제인회의 개막 "한·일 경제협력, 인프라 분야로 확대하자"

박용만 상의 회장 기조강연

주형환 산업부 장관 자율주행차·드론 등 공조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새로운 50년, 힘을 모아야

사사키 일·한경제협회 회장 3국 공동진출, 금융 지원을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첫 번째)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한일경제협회 제공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는 올해를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자원이나 에너지 분야에 편중된 신흥국 진출 협력을 교통·사회기반시설 등 첨단 인프라 분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일 양국 경제인이 모여 협력을 다지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한·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제통합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성장분야 연구개발(R&D) 협력 △지속성장을 위한 인재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양국 성장을 위해서는 한·일 투자협력을 통한 신흥국 진출이 필요하다”며 “신흥국의 자원, 에너지 분야에 편중된 협력을 교통·사회기반시설 등 첨단 인프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거 양국 간 경제협력이 제조업, 부품소재 분야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신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 진출 등으로 경제통상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드론 등 첨단산업에서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국제표준 제정에서 공조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를 새로운 한·일 우호 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 구축에 양국 경제인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게이단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의 조기 참여를 기대하며 일본 경제계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기업의 제3국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의 제도금융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18일에는 ‘아시아의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와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신한·일 협력파트너십’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며, 이후 양국 경제협회 이름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2016.05.17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 한일 재계 "로봇·AI등 신산업표준 주도하자"

日서 양국 경제인회의…서울·도쿄 벤처클러스터 조성 공감대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일경제협회]

"한·일이 힘을 합쳐 서비스로봇 스마트카 등 신산업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시장을 장악하자."

17일 일본 도쿄 오후라호텔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일 재계와 정부 인사들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한·일이 힘을 모아 로봇 인공지능(AI)과 스마트카 등 신산업을 키워 미래 50년을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제조업과 정보기술(IT)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지능화 시대에 한·일 양국이 과도한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공동 연구개발(R&D)과 인적 교류로 신산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도 "미래 성장 분야인 의료·요양기기 개발과 간호 인재 육성 등 고령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제3국 협업 확대를 위한 금융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2016.05.17 황형규 기자



## “AI·로봇·스마트카 표준 주도하자” 도쿄서 손 잡은 한일재계

“한일이 힘을 합쳐 서비스로봇, 스마트카 등 신산업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시장을 장악하자”

18일 도쿄 오키다호텔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일 재계와 정부 인사들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일이 힘을 모아 로봇 인공지능(AI) 스마트카 등 신산업을 키워 미래 50년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제조업과 IT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지능화 시대에 한일 양국이 과도한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공동 연구개발(R&D)와 인적교류로 신산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도 “미래 성장분야인 의료·요양 기기 개발과 간호 인재 육성 등 고령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제3국 협업 확대를 위한 금융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일은 수출경쟁보다 투자협력으로 성장과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시장 인센티브를 제약하는 규제의 근본틀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19일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경제 저성장이 뉴노멀로 부상하면서 한일 모두 신성장 동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로보틱스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산업 표준 선점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부산·후쿠오카, 서울·도쿄를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동아시아 벤처클러스터로 키우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한일 재계의 협력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산업부 장관은 하야시 모토오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신산업표준 주도, 제3국 공동진출, 에너지 등 한일 경제협력이 확대되도록 정부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김윤 회장, 박용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유명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외교부 장관)도 특별강연을 한다.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회장,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증권 회장, 토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사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경제

## 한·일경제인 "스마트카·로봇 산업 협력하자"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

금융협력·중동 공동개척 의견도



▲김윤(오른쪽 세번째)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형환(〃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식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일경제협회

스마트카와 서비스 로봇 같은 미래 유망산업의 표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융합분야와 금융, 중동 같은 신시장 개척을 두 나라가 함께 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해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17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신성장 분야인 사물인터넷(IoT)이나 제조 지능화 등에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표준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교류와 교차 자격인증제도, 공동표준 개발협력을 통해 한일 간 신산업 표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기술융합 분야와 차세대 교통시스템 같은 국제표준, 중동의 산업 다각화 프로젝트, 금융 분야는 한일 경제협력의 미래”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이 협력하면서 공동 연구개발(R&D) 활동과 인적 교류를 계속 강화해나간다면 양국이 지나친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한일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연쇄적인 생산과 공급)’ 구조하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와 그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금융협력, 미래 성장 분야인 의료·요양보호기기 개발 등 고령화 대처 산업,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협력, 차세대 인재교류·문화 및 관광 교류 등을 놓고 양국이 폭넓게 협력하자”고 밝혔다.

2016.05.17.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 서울경제

한일 통상장관, 경직된 LNG 관행 개선키로 · · “年 1회 회담 정례화”  
주형환 산업부 장관, 日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  
현지업체와 원탁회의 · · “8,000만달러 투자유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주형환(사진) 장관이 한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일본을 방문,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해마다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한일 양국의 산업통상장관회의가 연 1회로 정례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주형환(사진) 장관이 한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일본을 방문,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해마다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 회의 개최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됐으나, 이번에 정례화 된 것으로 1차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국측이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Intra firm) 교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이에 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기로 했다.

특히 두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액화천연가스(LNG)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 등 3가지 사항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기로 했다.

LNG 협력과 관련해선 세계 1·2위 LNG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이 소비국 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LNG계약 관행을 개선기로 했다.

계약서 상의 도착지 이외의 곳에 LNG 하역을 금지하는 도착지 제한과 연간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금을 내야 하는 의무인수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데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제 3국 공동 진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해 해외 인프라 플랜트 분야에 공동 진출하자는 취지다.

실제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가 공동 지분으로 참여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본과 한국이 세계 4위, 7위에 해당하는 거대 전자상거래시장임을 고려해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디지털 싱글마켓’을 적극 실현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소액 거래 비중이 높아 통관물류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통관시스템, 국제배송 추적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보호, 전자결제 간편화, 과세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장관은 또 일본 오쿠라 호텔 등에서 현지 업체인 스미토모화학, 도레이 등 16개 기업과 원탁회의를 열어 8,000만 달러(940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원탁회의는 같은 날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를 계기로 현지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주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이 전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투자 시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 진출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한국에 투자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5.1%에 해당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이 가능하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발효돼 2년 차에 접어든 한중 FTA의 관세 혜택과 48시간 내 신속 통관 등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산업부와 중국 질검총국 간 비관세 장벽해소 노력의 성과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8,000만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가 예상된다 밝혔다.

이번 회의가 일본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세를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 규모는 △2012년 45억4,000만달러 △2013년 26억9,000만달러 △2014년 24억9,000만달러 △2015년 16만7,000만달러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해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에 힘입어 어렵게 조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잘 살려 최근 위축되고 있는 교역과 투자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환경”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한일경제 상생 가능"(종합)

18일까지 이틀간…양국 재계 요인 300여명 · 주형환 장관 등 참석  
한국 참석자들, 구마모토 강진 성금 7천500만원 전달

한일관계가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들이 도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한경제협회(회장: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은 회의를 열어 새로운 한일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할 한일협력 모델로 한일 양국기업의 상호투자·제3국공동진출 확대, 에너지·전자상거래·무역투자측면에서의 통합노력 가속, 미래산업에서의 기술개발 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였다"며 "2016년을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경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뒤 "한일이 협력하면서 공동 연구·개발(R&D) 활동과 인적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면, 양국이 지나친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한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연쇄적인 생산과 공급) 구조 하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와 그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금융협력, 미래 성장 분야인 의료·요양보호기기 개발 등 고령화 대처 산업, 국경을 초월한 환경 문제 협력, 차세대 인재교류·문화 및 관광 교류 등을 놓고 양국이 폭넓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 기업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회장과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련(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측 참석자들은 구마모토(熊本)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한일 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명의로 구마모토 지진성금 700만엔(약 7천 500만원)을 사사키 회장에게 전달했다. 회의는 18일까지 열린다.



▲17일 도쿄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한 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주최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한일경제협회]

2016.05.17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

##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우호·경제협력 원년 만들자"

17일부터 이틀간…양국 재계 요인 300명·주형환 장관 등 참석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일관계가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들이 도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는 17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새로운 한일 협력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참석자들은 올해를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양국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일경제협회는 전했다.

회의에는 양국 재계 요인 약 300명이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단장인 김윤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내빈자격으로 참석해 축사와 특별강연을 한다.



일본 측에서는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과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련(經團連·일본경제

단체연합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 등이 참석한다. 일본 측 내빈으로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원이 자리한다.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5월 1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폐회식이 열리는 모습.

2016.05.17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mailto:jhcho@yna.co.kr)

##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도쿄=연합뉴스) 한일관계가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들이 도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도쿄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주최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5.17 [한일경제협회 제공]

2016.05.17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mailto:jhcho@yna.co.kr)

## "한중일FTA 조기체결 지원"...한일경제인 공동성명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 폐막

한국과 일본 재계 요인들은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체결하도록 지원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는 18일 도쿄에서 끝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한일 주도에 의한 아시아 경제통합,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 성장분야의 협력, 정보통신·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차세대 교류와 문화교류의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한일 재계 요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17일 도쿄에서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는 모습[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16. 05. 18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

##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경제인회의’가 17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 상호투자과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에너지와 전자상거래, 무역투자 통합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올해를 한일 우호, 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명의로 약 7천5백만 원의 성금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2016.05.17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0653&ref=A>

##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 “우호·경제협력 원년 만들자”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도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17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새로운 한일 협력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참석자들은 올해를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양국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일경제협회는 전했다.

회의에는 양국 재계 요인 약 300명이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단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내빈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와 특별 강연을 한다.

일본 측에서는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과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오카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 등이 참석한다.

또, 일본 측 내빈으로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원이 자리한다.



## “한중일FTA 조기체결 지원” ...한일경제인 공동성명

한국과 일본 재계 요인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체결을 위해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18일 도쿄에서 끝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협회는 성명에서 "한일 주도에 의한 아시아 경제통합,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 성장분야의 협력, 정보통신·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차세대 교류와 문화교류의 확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등 한일 재계 요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6.05.18.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1430&ref=A>

##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한일경제 상생 가능"

한일관계가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인들이 도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는 17일 도쿄 도내 한 호텔에서 한일 재계 요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어 새로운 한일 협력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할 한일협력 모델로 한일 양국기업의 상호투자·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에너지·전자 상거래· 무역투자측면에서의 통합노력 가속, 미래산업에서의 기술개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6년을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05.17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 한일 경제협력 회복 가속, '장관회의' 정례 개최 합의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대일 투자유치 8천만불 확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일본 경제산업성 집무실에서 하야시 모토오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을 갖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17일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APEC 등 다자 회의 계기 비정기적으로 개최됐으나, 이번에 정례 개최를 합의한 것이다.

양 장관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경산성이 긴밀히 협의해 한일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연1회 교대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이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 교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전체교역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한데 대해, 일본측도 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키로했다.

또 양국간 경제협력의 분야도 기존의 제조업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신산업, LNG 등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경제 합의사항(LNG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세계 1,2위 LNG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이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LNG계약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러한 한일간 협력이 한일중 3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역내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WTO, G20 등 다자 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양국 대표경제인들이 모인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5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0년을 향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양국간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관계 강화와 신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경제통상 협력 분야 확대, '한일간 협력'을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성 등 세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단련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어렵게 형성된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단련을 비롯한 일본경제계의 협력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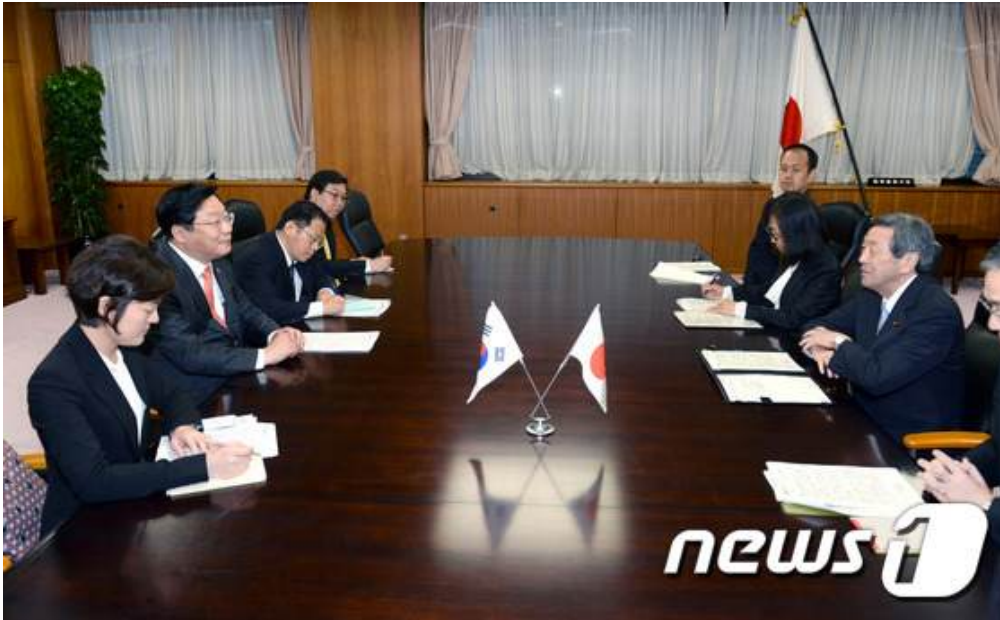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사카키바라 회장은 한국정부와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주 장관은 이어 도레이(미토모)라레 등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라운드 테이블도 개최,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 등 제3국 수출, 한국과 일본기업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간 유망한 투자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투자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3개 일본기업은 8천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한·일 통상장관회담, 연 1회 정기적으로 열린다..."경제협력 확대"  
주형환 "신산업·에너지 등으로 협력 분야 확대...한·일·중 협  
력으로 확장해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일본 동경 경제산업성 집무실에서 하야시 모  
토오(林幹雄)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을 갖고, 한일 양국간 통상협력과 통상장관채널  
정례화 등 양국의 통상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5.17/뉴스1

앞으로 한·일 통상장관회담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지난 17일 일본을 방문, 하야시 모토오  
(林 幹雄)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을 통해 두 나라는 앞으로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 1회 정례적  
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그 동안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등 다자 회의때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 1회 교대로 통상장관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후속 실무협의를 거  
쳐 1차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두 나라는 경제협력을 기존 제조업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신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와 표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경우 서로 기준을 조화시키고 기준이 없을 경우 서로 협력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두 나라는 전세계 LNG 소비 1·2위 국가인 만큼 기존 판매자 위주의 LNG 계약관행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 별관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5.17/뉴스 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주형환 장관은 또 300여명의 양국 대표경제인들이 참석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 "한국과 일본이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일 협력에서 더 나아가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주 장관은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단련 회장을 만나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투자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어렵게 형성된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단련을 비롯한 일본경제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레이(미토모)라레 등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투자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제3국 공동진출 등 투자 유망분야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행사를 통해 3개의 일본기업이 8000만달러 투자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 한일 경제인 "아시아 경제 통합 위해 협력 하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 별관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5.17/뉴스1 © News1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한일경제협회는 18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동 성명을 통해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인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일 주도에 의한 아시아 경제통합, △제3국 공동 진출 확대, △미래 성장분야의 협력, △정보통신·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차세대 교류와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경제권 형성, 나아가 아시아지역 전체의 경제통합을 향해 한일 양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양국 경제인들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하고 나섰다. 양국 경제인은 고령자 의료·요양보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핵심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의료·요양보호 기기의 개발, 요양보호 인재의 확보와 교육, 시설운영 등에 대한 아시아 각국들의 협력을 얻기로 합의했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 협조와 해결을 위해 노

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공동연구 및 R&D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인은 양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ICT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 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라는 주제 하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한국 측 단장단 일행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을 예방하고,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애도표명과 함께 경제·인재·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나가는데 있어서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호소했다.

2016. 05. 18 최명용 기자 xpert@news1.kr

## 주형환 장관,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서울=뉴스1) 조현아 인턴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일본 동경 오쿠라 호텔 별관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5.17/뉴스1 shj04256@news1.kr

# 뉴스토마토

주형환 장관, 한·일 통상장관회담 매년 개최 합의

17일 일본서 '투자라운드레이블' 개최...대일 투자유치 8천만달러 확보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매년 개최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 회의가 열릴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됐고 이번에 정례화를 합의한 것이다. 1차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이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Intra firm) 교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전체교역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일본측도 이에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7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집무실에서 하야시 모토오 경제산업성 대신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LNG 등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후속조치를 실행할 것도 협의했다. LNG 협력과 관련해선 세계 1, 2위 LNG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이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LNG계약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제 3국 공동 진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해 해외 인프라 플랜트 분야에 공동 진출하고,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본과 한국이 세계 4위, 7위에 해당하는 거대 전자상거래시장임을 감안해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디지털 싱글마켓'을 적극 실현키로 했다.

양 장관은 이러한 한일간 협력이 한일중 3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역내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간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WTO, G20 등 다자 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또 이날 300명의 양국 대표 경제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5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0년을 향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주 장관은 도레이, 스미토모, 쿠라레 등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8000만 달러(940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mailto:pinvol1973@etomato.com)

## 한·일 통상장관회담 정례화 합의...주형환 日비즈니스 외교 성과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일본 방문...하야시 모토오 日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  
양국 LNG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키로  
日 기업 투자라운드 테이블 개최 8000억달러 투자확정 '성과'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매년 개최기로 합의했다.

한일 경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주 장관은 지난 17일 하야시 모토오 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회담을 개최기로 했다.

그동안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회의 개최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됐으나, 이번에 정례화 된 것으로 1차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국측이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Intra firm) 교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전체교역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일본측도 이에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경제 합의사항(LNG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LNG 협력과 관련해선 세계 1,2위 LNG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이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LNG계약 관행을 개선기로 했다.

계약서 상의 도착지 이외의 곳에 LNG 하역을 금지하는 도착지 제한과 연간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인수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데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제 3국 공동 진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해 해외 인프라 플랜트 분야에 공동 진출하자는 것이다.

실제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가 공동 지분으로 참여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본과 한국이 세계 4위, 7위에 해당하는 거대 전자상거래시장임을 감안해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디지털 싱글마켓'을 적극 실현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소액 거래 비중이 높아 통관물류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통관시스템, 국제배송 추적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보호, 전자결제 간편화, 과세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장관은 또 이날 300명의 양국 대표 경제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 ▲신산업·에너지·전자상거래·제3국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 확대 ▲한·일·중 협력 확대 등 3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주 장관은 도레이, 스미토모, 쿠라레 등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8000만 달러(940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eswoo@newsis.com



# 머니투데이

## 日 투자유치 나선 주형환 장관 "韓 FTA 네트워크 활용 가능"

17일 일본 현지서 스미토모화학, 도레이 등 16개 기업 관계자 만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 메이페어룸에서 열린 투자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투자 유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 장관이 17일 일본 오쿠라 호텔 등에서 현지 업체인 스미토모화학, 도레이 등 16개 기업과 '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현지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를 통한 일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의 투자 매력을 알렸다. 특히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만큼, 해외 주요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장관은 "한국에 투자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5.1%에 해당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이 가능하다"며 "실제 일본의 한 기업이 한·중 FTA의 수혜품목인 고흡수성 수지 제조공장을 한국에 설립한 뒤 관세혜택을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기업은 한국 완제품 생산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요와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8000만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해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에 힘입어 어렵게 조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잘 살려 최근 위축되고 있는 교역과 투자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환경"이라고 강조했다.

2016.05.17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 머니투데이

##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하자"

17~18일 일본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열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17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일경제협회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는 17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인 300여명이 모여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해 새 시대를 열어가요'라는 주제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1,284,000원 ▲4000 0.3%) 사장, 조현준 효성(117,500원 ▼500 -0.4%)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였다"며 "올해를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동일본대지진 5주기를 맞아 일본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명의로 구마모토 지진 성금 700만엔(약 7500만원)을 일본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회장에게 전달했다.

우리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한일협력 모델을 만들어 한일이 공동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일 경제를 노동시장, 자본생산성, 제도경쟁력 면에서 진단하고, 양국 성장과제로 △수출경쟁보다 투자협력 △제도경쟁력으로 성장시스템에 걸맞은 노동·교육·규제 개선 △기업 혁신을 제언했다.

2016.05.17 기성훈 기자

=

# 머니투데이

## 한일경제인, 우호·경제협력 원년선언...새로운 50년 힘모으자

17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

한일경제협회(회장:김윤)와 일한경제협회(회장:사사키 미키오)가 주관하는 '제48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열렸다.

첫날 행사에는 양국의 최고경영자(CEO) 318명이 모여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라는 주제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2016년을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세계 경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한일 양국이 공동 R&D 활동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면, 한일 '서플라이 체인 구조 하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ACE)가 출범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형성됐는데,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한일도 여기에 빨리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타결된 TPP에 한국이 참여하면 한일 FTA 체결 효과가 생겨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김 회장은 일본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명의로 '구마모토 지진 성금' 700만 엔을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에 의한 아시아의 경제통합 주도를 제안했다.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금융협력 △미래 성장분야인 한일 의료·요양보호기기 개발 및 간호인재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처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협력 △차세대 인재교류·문화교류와 관광교류 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2016.05.17 오동희 hunter@mt.co.kr

# 머니투데이

## 한일경제인, 향후 50년을 향한 한일협력 공동성명 발표

한국의 TPP참여 희망, 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성장분야의 한일 R&D협력 등 합의

한일 양국 경제인(한국대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들은 18일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제휴·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 경제인은 △한일 주도에 의한 아시아 경제통합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 성장분야의 협력 △정보통신·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차세대 교류와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월 4일에 12개국에 의해 서명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의 조기체결을 향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경제인은 의료·요양보호 기기의 개발, 요양보호 인재의 확보와 교육, 시설운영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의 공유와 국제 규격화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연구와 R&D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양국 경제인은 양국에서 연간 600만명이 왕래하는 상황에서 양국 관광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ICT를 활용한 연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318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18일 일본 오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일정을 마쳤다.

이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 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라는 주제 하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회의 1세션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일경제협력의 고도화,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사장은 한일 양국은 무역·투자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해 왔으나 글로벌 경제 저성장



이 뉴노멀로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협력관계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양국 모두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대로 들어서서 다양한 기술 및 아이디어의 융·복합화를 통한 협력 고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사장은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방안으로 서비스사이언스·신산업 표준·벤처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을 제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양국 정부에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 지원정책 확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R&D 네트워크 구축 선도, △지식재산권 강화로 기술유출 우려 불식을 제언했다.

박사장은 또, 양국 기업에게는 △한일 기업이 참여수준에 머물고 있는 IoT 플랫폼 구축에 적극 협력하는 개방형 플랫폼 전략의 추진 △한일 양국이 협력해 자동차용 전지의 재활용 생태계 구축 선도 △한일의 신재생 에너지와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한 해외시장 동반진출 확대 전략을 제언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한국 측 단장단 일행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을 예방하고,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애도표명과 함께 경제·인재·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나가는데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2016.05.18. 오동희 hunter@mt.co.kr

##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 매년 정례화...일본기업 국내투자 유치

한국과 일본이 연 1회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경제 협력분야를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한다.

한·일 경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방일 중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매년 개최기로 합의했다. 그간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회의 개최 시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며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경제 합의사항(LNG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 장관은 또 이날 300명의 양국 대표 경제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 △신산업·에너지·전자상거래·제3국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 확대 △한·중·일 협력 확대 등 3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주 장관은 도레이, 스미토모, 쿠라레 등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한국의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 등 제3국 수출, 한국과 일본 기업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 간 유망한 투자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투자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일본 기업들로부터 8000만 달러(약 940억 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정민 기자 bohe00@

## [한일경제인회의]김윤 회장, "연구개발 · 인적교류로 경쟁대신 상생을 "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가 주관하는 '제48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17일 일본 도쿄 오키다 호텔에서 개막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최고 경영자(CEO) 318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일 우호 · 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 · 인재 ·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라는 주제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였다"면서 "2016년을 한일 우호 · 경제협력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경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공동 연구개발 활동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면, 양국이 지나친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한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연쇄적인 생산과 공급) 구조 하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작년 말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접국끼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CE)가 출범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형성됐다"면서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한일도 여기에 빨리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또한 "작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효과가 생겨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동일본대지진 5주기를 맞아 일본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명의로 '구마모토 지진 성금' 700만 엔을 일본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에 의한 아시아의 경제통합 주도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금융협력 ▲미래 성장분야인 한일 의료·요양보호기기 개발 및 간호인재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처 등을 제안했다.

2016.05.18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mailto:gungho@asiae.co.kr)



## [한일경제인회의]주형환, "8조달러 亞인프라, 韓日 공동진출하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8조 달러에 이르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공동진출하고 전자상거래시장을 단일화하는 한일 중 3국간 디지털싱글마켓,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제안했다.

주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오키라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가 주관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 이같이 축하했다.

주 장관은 우선 2012년 제44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한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자고 말했다. 주 장관은 "지금 아시아에는 8조달러 이상의 인프라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인프라의 개발을 위해 일본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및 금융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엔지니어링 및 시공능력이 결합된다면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 장관은 디지털싱글마켓 구축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이 필요성을 인식했고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3국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에서도 세부계획 도출을 위해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한일에 단일 디지털싱글마켓이 형성된다면 한일 간 경제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어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인 '유레카 프로젝트'와 같은 한일이 중심이 된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하자고 제안하고 "양국이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 구축 및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 등을 발전시키게 된다면 역내로 하여금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면서 협력적 분업구조를 형성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경제인회의]박용만, "수출시장은 레드오션, 투자시장서 협력하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고 해외의 투자시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면서 신흥국에서 자원과 에너지, 교통, 사회기반시설 등의 인프라에서의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 오키다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가 주관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글로벌경제동향과 한일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한일 양국의 경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투입형 성장의 한계, 소득수준에 비해 낙후된 제도경쟁력 등의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거시부문에서는 투자협력을, 미시부문에서는 제도개선과 기업혁신을 각각 제언했다.

박 회장은 먼저 한일 협력의 기회는 수출 시장보다는 투자 시장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세계 무역시장의 파이는 정체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중국이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를 앞세워 제조업 자금률을 높이고 최종재 수출을 늘리고 있어, 동북아 교역시장은 국가간 비교우위를 활용한 '분업, 협력' 구조에서 치열한 '경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시장을 이제 레드오션(Red Ocean)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부터는 양국 경제문제를 '투자시장'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특히 신흥국의 인프라 개발에 협력 기회가 많을 것으로보고 "자원이나 에너지 분야로 편중돼 있는 협력을 교통, 사회기반시설 등 첨단 인프라로 늘려간다면 서로가 추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회장은 노동, 교육, 규제 등 취약한 제도를 성장단계에 걸맞게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교육은 주입식 중심, 학벌 중심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사례(스위스 패러독스)를 예로 들었다. 스위스의 대학 진학율은 44%에 불과(한국 69%, 일본 52%) 하지만, 지식노동자 고용비율은 51.0%로 한국(21.3%)과 일본(24.3%)을 압도한다. 이는 대학진입 장벽을 높이는 대신 비대학 출신자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대졸자와의 임금격차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또 다른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정부규제 부담 항목에서 한국이 97위(전체 140개국), 일본은 54위로 경제력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박 회장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화하고, 사전규제를 사후처벌로 바꾸는 방향으로 규제의 근본 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 과제로 기업혁신을 주무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하면된다'는 정신이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정신'(1950-1973년 연 8.1% 성장)이다. 박 회장은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를 보면 한국은 28위, 일본은 33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돼 있다"면서 "현대에는 끈기와 근성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내 것을 충분히 연구하되,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다른 기업을 찾아 끊임없이 협업하는 유연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 경영의 소프트웨어라 불리는 기업 문화부터 바꿔가볼 것을 제안하고 "상명하복식 지시, 여성에 대한 차별, 불필요한 야근 등 아직까지 양국의 기업 문화는 딱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과학과 의식 전환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과학화된 업무프로세스를 만들어 기업들이 더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18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mailto:gungho@asiae.co.kr)





## [한일경제인회의]박상진 삼성電 사장,"수명다한 車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 “

- 경제환경 변화로 한일 경제협력의 고도화가 필요
- 서비스사이언스·신산업표준·벤처생태계로 네트워크 확대
- 참여수준에 머물고 있는 IoT 플랫폼 구축에 적극 협력
- 수명다한 車배터리를 ESS로 재활용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자료사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18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연구개발 네트워크구축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한일과 동아시아를 잇는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 양국 기업은 개방형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용 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사장은 이날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가 주관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일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사장은 "지금까지 한일 양국은 무역과 직접투자, 신흥국 공동진출 등에서 상호 협력해 왔지만 부품소재 분야 무역·투자 중심의 기존 협력관계만으로는 글로벌 저성장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산업 성장 정체 및 신흥국 추격 가시화로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박 사장은 하지만 개별 기업,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한일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에서 연구개발로 고도화할 필요

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서비스 사이언스 활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서비스 사이언스는 IT, 수학, 경영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이론을 통해 서비스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업전략을 체계화하는 연구방법이다. 일례로 1969년 창업한 간코푸드서비스는 초밥,수제두부, 주점 등 100여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일본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서비스공학센터와 공동으로 종업원의 동선과 행동 측정했다. 그 결과 조리 대기시간은 25.7% 에서 18.4%로 감소하고接客업무 직원 69%의 작업속도가 개선됐다. 박 사장은 서비스 사이언스 분야 전문가 교류회를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사장은 또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미래 유망산업 표준경쟁에서 한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로보틱스, 차세대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생명공학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한일 국제표준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산업을 중심으로 폭넓은 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해 시장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한일 벤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보완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포럼, 창업경진대회, 기술교류회/연구회, 전문가 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후쿠오카, 혹은 서울-도쿄간 벤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벤처 클러스터로 육성하자고 말했다. 시범적으로 한일 양국의 벤처 플랫폼에 상대국 벤처를 유치해 상호 연계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일본 벤처는 한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한국벤처는 일본 지자체와 대학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박 사장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현행 정책 이외에 서비스 사이언스, 신산업 표준, 벤처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가 교류회, 인재육성, 연구개발 투자 및 표준 협력, 정책자금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및 동아시아를 잇는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협력관계를 고도화하고 동아시아발(發) 신산업과 신제품 창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양국 기업은 ▲개방형 플랫폼 전략 추진▲생태계 조성▲동아시아 등 해외진출 협력확대 등을 제언했다. 박 사장은 "기업 내외부의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고 호환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한일 기업이 참여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구축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양국이 협력해 '자동차용 전지의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자"면서 "수명이 다한 자동차용 전지를 ESS(에너지저장장치)용으로 재활용하는 표준·인증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와 ESS를 결합하여 해외시장에 동반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일경제인회의]"韓日 해외사업, 바이오의약품·관광으로 확대 필요"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원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삼성블로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자원과 에너지, 인프라 중심인 한국과 일본의 해외공동사업을 바이오의약품과 환경,우주, 관광분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야마 히로츠클루 전 한국미쓰비시 사장은 18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가 주관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경제연계와 발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시야마 전 사장은 양국 경제연계발전이 일본의 기술과 자금공여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과 합작사 설립으로 이어져왔다면 이제 제 3국으로 공동진출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기업의 강점을 결합해 협업을 하면 자금조달력은 강화되는 반면에 투자규모가 큰 안건에 대해서는 리스크분담이 이뤄진다면 양국 기업이 상호보완하면서 전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 3국에서의 협업 분야로 ▲공동연구개발 ▲의료·요양보호▲바이오의약품▲환경 ▲우주▲관광 등을 꼽았다. 공동연구개발은 2014년 5월 금호타이어와 요코하마고무의

연구개발분야의 전략적 제휴 체결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양사는 지난해 5월 연구기술 분야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미래형 타이어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요코하마고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시야마 전 사장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이 분야에서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 등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한일 기업 협력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11년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메이지 파마사는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 신약 개발에 대한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양사가 공동 투자해 2011년에 인천에 공장을 준공했고 2015년에 DMB 사(동아 51%:메이지 49%)를 설립한 바 있다.

이시야마 전 사장은 양사의 협업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 자본과 설비 투자, 인재가 필요한데 이는 한국이 잘하는 분야이며 일본은 유럽, 미국에 이은 바이오 의약품 소비시장"이라면서 "한일 양사가 공동으로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하고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해 자국에서 승인 받은 후 판매가 되면 장기적으로 제3국으로의 수출, 신약 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야마 전 사장은 관광분야에서는 한국 남동부와 서일본을 중심으로 한일 공동 관광존을 형성해 역내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역외 관광객 증가도 도모하자고 말했다. 세부방안으로 정부와 민간기업 연계로 2018 평창과 2020 도쿄올림픽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관광객을 두 나라에 유치하고 선수단 연습환경 제공에 대해서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행사를 한일 공동으로 유치할수 있도록 하며 2002년 월드컵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유럽 33개국으로 구성되는 유럽 여행 위원회처럼 한중일 3개국 공동관광청을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2015년 10월에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재계 회의 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안한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mailto:gungho@asiae.co.kr)

## [한일경제인회의]양국 경제인,"제3국 공동진출 확대...연구개발, ICT 등 협력" 공동성명



17일 개막식에 참석한 한일 양국경제인. 오른쪽 첫번째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가 17,18일 이틀간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318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제휴·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 경제인은 ▲한일 주도에 의한 아시아 경제통합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 성장분야의 협력 ▲정보통신·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차세대 교류와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또한 지난 2월 4일 12개국에 의해 서명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높은 수준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체결을 향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또한 고령자 의료·요양보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핵심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의료·요양보호 기기의 개발, 요양보호 인재의 확보와 교육, 시설운영 등에 대한 아시아 각국들의 협력을 얻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으며 성장분야에 있어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경제인은 양국 관광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ICT를 활용한 연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협력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 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해 새 시대를 열어가요!'라는 주제 하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한국 측 단장단 일행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을 예방하고,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애도표명과 함께 경제·인재·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나가는데 있어서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호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mailto:gungho@asiae.co.kr)





## 日과 매년 산업통상장관회의 정례화…투자 8000만弗 유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일본이 연 1회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경제 협력분야를 에너지신산업,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개 일본기업으로부터 8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일본에서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인회의,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한일 경제통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며 감소추세인 양국간 교역·투자규모를 다시 증가세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지난해 한일 교역규모는 715억달러로 2012년의 1032억달러에 훨씬 못미친다. 일본의 대한 투자액 역시 2013년 26억9000만달러에서 2014년 24억9000만달러, 2015년 16억7000만달러로 줄어드는 추세다.

먼저 주 장관은 하야시 모토오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경산성이 긴밀히 협의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후속 실무 협의를 거쳐 1차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양국간 경제협력의 분야도 기존의 제조업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신산업, LNG 등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양국간에 규제, 표준이 있는 경우는 서로 기준을 조화(harmonize)시키고, 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동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LNG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 등 경제부문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LNG 협력부문에서는 판매자 위주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제 3국 공동진출을 위해 기업과 수출 금융기관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디지털 싱글마켓이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이러한 한일간 협력이 한일중 3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역내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모인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관계 강화, 에너지신산업 등 협력분야 확대, 한중일 협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6년에 이어 두번째다.

그는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단련 회장과 면담에서 "국내기업의 투자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하고 있는바, 일본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레이, 스미토모, 쿠라레 등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3개 일본기업으로부터 8000만달러의 투자계획도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기업 A사 약 4000만달러, 디스플레이부품기업 B사 약 3000만달러, 2차 전지 분리막기업 C사 약 1000만달러 등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mailto:seul@asiae.co.kr)

## 주형환 산업부장관, 일본 3개사 ‘8000만달러’ 투자 이끌어냈다



아시아투데이 홍정원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8000만달러(약 850억원)의 대일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18일 산업부는 주 장관이 전날 일본 토교에서 열린 ‘투자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도레이·스미토모·쿠라레 등 일본기업으로부터 자동차 부품(4000만달러), 디스플레이 부품(3000만달러), 2차전지 분리막(1000만달러) 총 8000만달러의 투자 계획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통상장관 면담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면담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주 장관은 하야시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통해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간 경제협력의 분야도 기존의 제조업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신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전자상거래·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양국간에 규제·표준이 있는 경우는 서로 기준을 조화시키고, 기준이 없는 경우는 양국기업간 공동 협

력을 통해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주 장관은 300여명의 양국 대표경제인들이 모인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5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0년을 향한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주 장관이 제시한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은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관계 강화 △산업·에너지·전자상거래·제3국 공동진출 등을 통한 경제통상 협력 분야 확대 △한일간 협력을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 등 3가지다.

주 장관은 “일본 도레이가 한국의 새만금 산업단지에 고분자 첨단소재 공장을 준공하고 스미토모는 여수에 고흡수성 수지 제조공장 설립을 통해 중국 등 세계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며 “한일 협력을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해 이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zizou@asiatoday.co.kr](mailto:zizou@asiatoday.co.kr)

# 아주경제

##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서로 윈-윈 하자”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도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17일 도쿄 도내 한 호텔에서 한일 재계 요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할 한일협력 모델로 한일 양국기업의 상호투자·제3국 공동진출 확대, 에너지·전자상거래·무역투자측면에서의 통합노력 가속, 미래산업에서의 기술개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개회사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였다”면서 “2016년을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세계경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일이 협력하면서 공동 연구·개발(R&D) 활동과 인적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면, 양국이 지나친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한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연쇄적인 생산과 공급) 구조 하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와 그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금융협력, 미래 성장 분야인 의료·요양보호기기 개발 등 고령화 대처 산업,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협력, 차세대 인재교류·문화 및 관광 교류 등을 놓고 양국이 폭넓게 협력하자고 제

안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 기업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회장과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 등이 자리했다.

이날 한국 측 참석자들은 구마모토(熊本)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명의로 구마모토 지진 성금 700만엔(약 7500만원)을 사사키 회장에게 전달했다.

2016.05.17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 에너지경제

## 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일 경제우호관계 형성위해 동분서주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일본을 방문한 주형환 장관은 하야시 모토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 면담, 48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면담,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주 장관의 이번 행보는 지난해 11월 3년 6개월여만에 양국 정상회담 이후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일본현지 활동을 통해 관계회복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상호 교역·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에서는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APEC 등 다자 회의 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됐었다.

양 장관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경산성이 긴밀히 협의하여 한일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서로 공감했다. 향후 후속 실무 협의를 거쳐 1차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측은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Intra firm) 교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전체교역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리측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기로 했다.

양국간 경제협력분야도 기존의 제조업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벗어나 신산업, LNG 등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기로 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양국간에 규제·표준이 있는 경우 서로 기준을 조화(harmonize)시키고, 기준이 없는 경우는 양국기업간 공동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주형환 장관은 양국 대표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한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50년간의 한일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0년을 향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번영을 위한 세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주 장관은 "양국간에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한중 FTA 발효, FTA 네트워크의 이점, 높은 지재권 보호수준 및 사회기반시설, 최근의 노동·규제 개혁 등을 활용, 한국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고, 한국도 일본의 TPP 가입, IT 기반을 활용해 일본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검역, 인증, 표준 등 분야의 상호조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을 통한 교역확대를 추진하고 신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3국 공동진출 등으로 경제통상 협력 분야를 넓혀야 한다"며 "한일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망 연결,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LNG 공동협력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단련 회장과 면담에서는 한일 간 정치외교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통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최근 어렵게 형성된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단련을 비롯한 일본경제계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6.05.18. 한준성 기자 hjs777@ekn.kr

## 도쿄서 한일경제인회의..."한일경제 상생 가능"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도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일 재계 요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새로운 한일 협력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한일협력 모델로 한일 양국기업의 상호투자과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산업에서의 기술개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국 측 참석자들은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한일경제협회' 명의로 구마모토 지진 성금 700만 엔, 우리 돈 7천500만 원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2016.05.17 출처 : [http://www.ytn.co.kr/\\_ln/0104\\_201605171637169060](http://www.ytn.co.kr/_ln/0104_201605171637169060)



## 한·일 통상장관회담 매년 열린다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경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주 장관은 지난 17일 하야시 모토오 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회의 개최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됐으나, 이번에 정례화 된 것으로 1차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국측이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Intra firm) 교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전체교역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일본측도 이에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경제 합의사항(LNG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LNG 협력과 관련해선 세계 1,2위 LNG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이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LNG계약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계약서 상의 도착지 이외의 곳에 LNG 하역을 금지하는 도착지 제한과 연간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인수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데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제 3국 공동 진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해 해외 인프라 플랜트 분야에 공동 진출하자는 것이다. 실제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가 공동 지분으로 참여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본과 한국이 세계 4위, 7위에 해당하는 거대 전자상거래시장임을 감안해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디지털 싱글마켓'을 적극 실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소액 거래 비중이 높아 통관물류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통관시스템, 국제배송 추적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보호, 전자결제 간편화, 과세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장관은 또 이날 300명의 양국 대표 경제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 ▲신산업·에너지·전자상거래·제3국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 확대 ▲한·일·중 협력 확대 등 3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주 장관은 도레이, 스미토모, 쿠라레 등 일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8000만 달러(940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한일 R&D · 인적교류 강화해 상생하자 "

17~18일 일본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

김윤 회장 "ACE · TPP 등 참여해 협력기반 확대 "



- ▲ 김윤(왼쪽부터)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일경제협회 제공

“2016년을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아가야 한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000070)(149,000원 4,000 +2.76%) 회장)이 17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개막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005930)(1,283,000원 3,000 +0.23%) 사장, 조현준 효성(004800)(117,500원 500 -0.42%)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055550)(39,700원 300 +0.76%) 회장 등 양국 최고경영자(CEO) 318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였다”며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공동 연구개발(R&D) 활동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면 양국이 지나친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한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연쇄적인 생산과 공급) 구조 하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말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접국끼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CE)가 출범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형성됐는데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한일도 여기에 빨리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작년 10월 타결된 TPP에 한국이 참여하면 한일 FTA 체결 효과가 생겨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김 회장은 동일본대지진 5주기를 맞아 일본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명의로 ‘구마모토 지진 성금’ 700만엔(약 7500만원)을 일본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회장에게 전달했다.

우리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한일협력 모델을 만들어 한일이 공동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면서 한일 양국기업의 상호투자·제3국 공동진출 확대, 에너지·전자상거래·무역투자 측면에서의 통합노력 가속, 미래산업에서의 기술개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일 경제를 노동시장, 자본생산성, 제도경쟁력 면에서 진단하고, 양국 성장과제로 △수출경쟁보다 투자협력 △제도경쟁력으로 성장시스템에 걸맞은 노동·교육·규제 개선 △기업 혁신을 제언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에 의한 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확대와 금융협력 △의료·요양보호기기 개발 및 간호인재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대처 △환경문제 협력 △차세대 인재교류·문화교류와 관광교류 등에 대해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16.05.17 성문재 기자 [mjseong@edaily.co.kr](mailto:mjseong@edaily.co.kr)

## 한국-일본, 산업통상장관회의 매년 개최한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과 일본이 매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경제 협력분야를 에너지산업,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일본에서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경산성이 긴밀히 협의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후속실무 협의를 거쳐 1차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한일 관계가 외교적 문제로 경색됨에 따라 감소추세인 양국간 교역·투자규모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일 교역규모는 715억달러로 2012년의 1032억달러에 못 미친다.

양국은 경제협력의 분야도 기존의 제조업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신산업, LNG 등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양국간에 규제, 표준이 있는 경우는 서로 기준을 조화(harmonize) 시키고, 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동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LNG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 등 경제부문의 후속조치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LNG 협력부는 판매자 위주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제 3국 공동진출을 위해 기업과 수출 금융기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분야는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디지털 싱글마켓이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이러한 한일간 협력이 한일중 3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역내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장관은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모인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관계 강화, 에너지신산업 등 협력분야 확대, 한중일 협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6년에 이어 두번째다.

주 장관은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단련 회장과 면담에서 “국내기업의 투자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본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투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투데이

## 주형환 산업부장관, 일본 방문해 경제협력 확대 촉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투자라운드 테이블 등을 개최하며 한일 경제통상 협력을 촉구했다. 최근 한일 관계 경색 이후 감소 추세인 교역투자(교역투자)를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한일 교역현황은 2012년 1032억 달러에서 지난해 715억 달러로 계속 줄고 있다. 이 기간 일본의 대(對) 한국 투자액 역시 45억4000만 달러에서 16억7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에 주 장관은 전날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 장관 면담을 갖고, 산업부와 경산성 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검역, 인증, 표준 등 분야의 상호조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을 통한 교역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당시 정세균 장관(아오모리현)에 이어 두 번째다.

투자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도레이, 스미토모, 쿠라레 등 일본기업은 자동차부품 4000만 달러, 디스플레이부품 3000만 달러, 2차전지분리막 1000만 달러 등 8000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지난달 기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3009개사,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727사다. 국교정상화 후 50년간 교역에서 지난해까지 일본의 대한 투자 누적액은 397억 달러, 한국의 대일 투자 누적액은 70억2000만 달러 규모다.

주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내기업의 투자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협력을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3국은 역내 교역규모 20% 수준에 불과하므로 산업,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 진출에서의 한일 협력을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이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 정례화한다...교역·투자 회복 추진



일본을 방문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지난 17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지난 17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나라와 일본이 '산업통상장관회의'를 매년 1회 정례 개최한다. 한일 관계 경색으로 양국 교역·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17일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 면담,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등 한일 경제통상 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면담과 투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감소 추세인 한일 교역·투자 회복을 도모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산업부와 경산성은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회의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개최됐지만, 이번에 정례화하기로 했다. 1차 회의는 실무 협의를 거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경산성이 긴밀히 협의해 한일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경제협력 분야도 기존 제조업과 부품소재 분야에서 신산업, LNG 등 에너지, 전자상거래, 제3국 공동 진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양국 규제와 표준을 서로 조화시키고, 기준이 없으면 공동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의 경제 합의사항(LNG 협력·제3국 공동진출·전자상거래) 후속 조치도 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주 장관은 양국 대표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 향후 50년을 향한 한일 공동 번영을 위한 세 가지 경제협력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 일본 경단련 회장과 면담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또 도레이, 스미토모, 쿠라레 등 일본 주요 기업이 참석한 투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8000만달러 한국 투자 계획이 확정됐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 산업부장관, 한일 우호경제협력관계 촉진 위한 다각적 활동 전개

하야시 경제산업대신과 ‘산업통상장관회의’ 정례 개최합의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 한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세가지 방안 제시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대일 투자유치 8천만불 확보

산업부장관, 한일 우호경제협력관계 촉진 위한 다각적 활동 전개

- 하야시 경제산업대신과 ‘산업통상장관회의’ 정례 개최합의-

-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 한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세가지 방안 제시 -

-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대일 투자유치 8천만불 확보-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월 17일(화) 일본을 방문, (i) 하야시 모토오(林 幹雄)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통상장관 면담, (ii)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iii) 사카키바라 사다유키(原 定征)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團聯) 회장 면담, (iv)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한일 경제통상 협력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 최근 한일 관계 경색 이후 감소추세인 교역·투자를 상승세로 전환 필요

: 최근 한일 교역현황(억불) : ('12)1,032 → ('13)947 → ('14)860 → ('15)715

일본의 對韓투자액(억불) : ('12)45.4 → ('13)26.9 → ('14)24.9 → ('15)16.7

○ 작년 3년 반만에 정상회담('15.11월) 이후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일본현지 활동을 통해 관계회복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상호 교역·투자 확대를 도모

2016.05.18. 산업통상자원부

## "韓·日 협력 통해 함께 성장하자"

韓日경제인회의 도쿄서 열려... 양국 기업인 300여명 참석



▲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단장을 맡아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삼양홀딩스 제공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단장을 맡아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 측 단장을 맡아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삼양홀딩스 제공  
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모여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하는 융·복합 시대의 양국 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17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서는 양국 대표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한·일 양국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모임 이후 매년 양국을 번갈아 오가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한국 단장을 맡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과 일본이 지나친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2016년을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元年)으로 삼자"고 말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제3국 공동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국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주도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기기와 간호 인력 양성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조현준 (주)효성 사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선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증권 회장, 도쿠라 마사카쓰 스미토모화학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참석자들은 또 지난 4월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고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름으로 성금 700만엔(약 7500만원)을 일본 쪽에 전달했다.

2016.05.18. 이성훈 기자 inout@chosun.com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 별관에서 열린 제48회 한일 경제인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주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협력하여 양국의 공동성장과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佐口木 幹夫) 일한경제협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호시노 츠요시(星野 剛士) 경제산업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口) 일한의원연맹 회장, 유흥수 주일한국대사, 사카키바라 사다유키(口原 定征)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일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16.05.17 포커스포토 [photo@focus.kr](mailto: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 별관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주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협력하여 양국의 공동성장과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佐口木 幹夫) 일한경제협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호시노 츠요시(星野 剛土) 경제산업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口) 일한의원연맹 회장, 유흥수 주일한국대사, 사카키바라 사다유키(口原 定征)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일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16-05-17 포커스포토 [photo@focus.kr](mailto:photo@focus.kr)

## 第48回日韓経済人会議・韓国代表团による木原外務副大臣表敬



1 16日午後4時から約30分間、第48回日韓経済人会議に出席するため訪日した金鋭(キム・ユン)韓日経済協会会長を始めとする韓国側代表团が木原誠二外務副大臣を表敬しました(佐々木幹夫日韓経済協会会長同席)。

2 木原副大臣から、先般の熊本地震に対する韓国からのお見舞いと支援に感謝する旨述べた後、日韓経済関係の緊密化における両国経済協会の功績に敬意を表するとともに、韓国は戦略的利益を共有する最も重要な隣国であり、昨年来の政治面での前向きな動きを受け、重層的で未来志向の日韓関係の構築に向けて努力したい旨述べました。これに対し、金会長は、日韓経済関係の強化に両国経済協会で協力、尽力していきたい、日韓新たな50年へ向けた協力等につき、今回の経済人会議において議論したいと考えている旨応じました。

3 また、木原副大臣から、日韓新時代に向け、経済関係が更に緊密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とともに、17日からの経済人会議での活発な議論を期待する旨述べました。

### (参考)日韓経済人会議

日韓両国を代表する企業・団体のトップが一堂に会して両国経済の協力関係や課題について意見を交換する場として、1969年に「日韓・韓日民間合同経済委員会会議」の名称で発足。毎年1回、日韓交互に開催。本年は、5月17日から18日の日程で、日本で開催される。



## 日韓経済人会議が開幕 経団連会長「両国の連携と協力を強化」

日韓の企業人トップが意見交換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17日、都内で開幕した。経団連の榊原定征会長はあいさつに立ち、「経済界がともに手を携え、より幅広い分野で両国の連携と協力に向けた取り組みを強化していきたい」と語った。その上で「(協力)基盤として経済連携の枠組みが重要だ」と指摘。日本や米国などが合意した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に触れ、「韓国の早期参加を大いに期待している」と語った。

日本商工会議所の三村明夫会頭も基調講演の中で「TPPの加盟国のさらなる拡大はアジア地域にとって非常に重要で将来の発展のきっかけを与えるものだ」と述べ、韓国の参加に期待感を示した。三村会頭は「良好な日韓関係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にとって不可欠だ」とも指摘。「政治がどうであれ、経済人が実質的な交流を続けていくべきだ」と強調した。

# 日本経済新聞

## 日韓経済人会議が閉会 F T A 推進支持を再確認

日韓の企業人トップが意見交換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18日、共同声明を採択して閉会した。共同声明では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 P P）など自由貿易協定（F T A）の推進支持を改めて確認した。アジアなどの第三国における日韓企業のさらなる協業拡大や、I T（情報技術）、観光分野での協力なども盛り込んだ。

閉会後の記者会見で、佐々木幹夫・日韓経済協会会長は両国の国交正常化51年目に「新たな50年に向け、未来志向のいいスタートが切れた」と会議を振り返った。韓国側の金鎭（キム・ユン）韓日経済協会会長は、T P Pに韓国が参加すれば「実質的には日韓のF T A締結と同様の効果が得られる」とし「経済の拡大に向けて（T P P発効を）歓迎する」と改めて期待を示した。

# 日本経済新聞

## 「韓国もＴＰＰ参加を」 日韓経済人会議が閉幕

日韓企業の首脳らが両国関係に関して意見交換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18日、都内で2日間の日程を終えて閉幕した。採択した共同声明では「未来志向で密接にアジアの発展をけん引する」と明記。韓国の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ＴＰＰ）への参加を求めた。日中韓が進める自由貿易協定（ＦＴＡ）も早期締結を要請。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は閉幕後の記者会見で「韓国がＴＰＰに入れば日韓でＦＴＡができたのと同じ効果が期待できる」と述べた。

## 日韓経済人会議が東京で開幕 経団連会長、韓国のTPP参加に期待



日韓経済人会議であいさつする経団連の榊原定征会長＝１７日、東京都港区

日本と韓国の企業トップらが意見交換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１７日、東京都内のホテルで開幕した。昨年、日韓首脳会談が４年ぶりに開催され、改善しつつある両国関係を経済面で強化することなどが議論された。

来賓としてあいさつした経団連の榊原定征会長は、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ＴＰＰ）に関し「韓国政府、経営者が参加に前向きだと聞く。早期の加盟を期待する」と述べた。

主催者の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三菱商事特別顧問）は「日韓両国が１つの経済圏を構築し、連携を進め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あいさつし、韓国側は「日本と韓国が連携するサプライチェーンを構築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などと強調した。

同会議は昭和４４年に始まり、今年で４８回目。１８日は第三国での日韓両国による資源開発での協力のあり方などを議論し、共同宣言を採択、閉幕する。

## 韓国TPP参加、経済人らが要望 日韓経済人会議

日韓の経済界代表が民間レベルで連携のあり方を議論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18日まで2日間、東京都内であった。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への韓国の参加を要望し、アジア経済圏の統合を実現するために日韓が主導していく方針を確認した。

共同声明では、昨年11月の日韓首脳会談を受けて「日韓関係が一層緊密化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し、中国を加えた日韓中自由貿易協定（FTA）の早期締結に向け、経済界が後押しする方針を盛り込んだ。

会議は毎年開催で、48回目。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三菱商事特別顧問）は会見で「TPPが実現して韓国が参加すれば、日韓FTAができるのと同じ効果がある」と語った。

## 日韓経済人会議

# 経団連会長、韓国のTPP早期参加を

日本と韓国の企業トップらが参加して経済連携の強化を話し合う「日韓経済人会議」が17日、東京都内で開幕し、来賓の経団連の榊原定征会長は韓国の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への早期参加に期待感を示した。

日韓経済人会議は1969年にスタートし、今年で48回目。2日間の日程で開かれ、18日に共同声明を採択する。

昨年は日韓国交正常化50年に当たり、安倍晋三首相と朴槿恵大統領との日韓首脳会談が11月に初めて実現した。韓国側の代表である韓日経済協会の金鉦会長は「これからの50年を見据え、今年を新たな友好元年とし、アジア地域で強固な経済協力体制を構築すべきだ」と述べた。

日本側代表の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三菱商事特別顧問）は「両国経済界は日韓の関係改善に向けた動きを率直に喜んでいる」と強調。日韓と中国3カ国による自由貿易協定（FTA）について「早期締結を引き続き強く期待している」と話した。

（共同）

# 日刊工業新聞

## 来春消費増税 先送りけん制

### 同友会代表幹事

経済同友会の小林喜光代表幹事は17日の定例会見で、2017年4月の消費増税に関して「国内総生産（GDP）以外のファンダメンタルズも合わせて見ていくべきだ」との認識を示し、広がりつつある増税先送り論をけん制した。18日発表予定の1月～3月期のGDP成長率（速報値）は、消費増税をめぐる安倍晋三首相の判断材料の一つとされるが、

務めた作田久男氏（71）が就任すると発表した。ルネサスで工場閉鎖や人員削減などの経営再建を指揮した実績を持つ作田氏に再建を託し、20年3月期の営業黒字化を目指す。

作田 久男氏（さくた・ひさお）68年（昭和43）慶大工卒、同年立石電機（現オムロン）入社。95年取締役、1303年社長、11年会長。1303年ルネサスエレクトロニクス会長兼CEO。愛知県出身。

小林代表幹事は、GDPが21世紀的な経済の実態を「しっかりフォローしているのか」との問題意識を持つ。その上で「GDPだけで評価できない経済状況にある」と指摘。中長期的な視点で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に取り組む「首相の判断に期待する」と述べた。

### 日韓経済人会議 きょう共同声明

日本と韓国を代表する企業のトップ約300人が、両国の経済交流促進策を協議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17日、都内で開幕した。両国の国交正常化から4年後の1969年の初開催以来、毎年続いており、今年で48回目。今回は15年秋の日韓首脳会談の実現を弾みに「経済協力元年」と位置づけ、「次の50年に向けた未来志向の日韓協力」第三国における協業「成長分野での協力」「人材や文化、観光交流」について議論する。18日に共同声明を採択し閉幕する。